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성경: 계 2:18-29, 22:16, 벨후 1:19

I.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로마 천주교를 예시하는데, 이것은 6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변절한 교회로 완전히 형성되었다 — 계 2:18.

II. 두아디라 교회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다 — 계 2:20.

A.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로마 천주교는 이 여자와 똑 같이 되어, 많은 이교도의 실행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 왕상 16:31, 19:1-2, 21:23, 25-26, 왕하 9:7.

B.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세 여자는 같은 인물이다.

1.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한 여자가 (악하고 이단적이며 이교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누룩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밀가루 서 말 속에 감추어 둔다.

2.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창녀이다. 이 여자는 가증한 것들을 신성한 것들과 혼합시킨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 동일한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불린다.

3. 이 세 여자는 모두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다. 로마 천주교는 누룩을 고운 가루에 더한 여자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창녀이며, 기독교를 부패시킨 이세벨이다.

C.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주님은 변절한 교회가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주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것을 지적하신다.

1. 변절한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변절한 교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2. 신약의 원칙에 따르면, 주님은 결코 여자가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 딤후 2:12.

a.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스스로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주님 자신만이 남자로서 가르칠 권리를 갖고 계시고, ‘그렇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b. 로마 천주교는 가르치는 여자이다. 변절한 교회는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들도록 가르친다. 천주교의 추종자들은 모두 천주교의 이단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마취되어 있다.

III.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따르면 변절한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가르친다.

A. ‘깊은 것들’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와 같이 ‘깊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리킨다.

- B. 변절한 교회는 비밀들이나 깊은 교리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깊은 것들, 사탄의 비밀스러운 가르침들, 사탄적인 철학이다.
1. 변절한 교회는 사탄적인 비밀들을 가르친다. 사탄의 깊은 사상, 사탄의 관념이 변절한 교회에 짝 채워져 있다.
 2. 변절한 교회는 사탄의 체현이 되었다.
 - a. 합당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엡 1:22-23), 변절한 교회는 사탄의 체현이다.
 - b.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지만, 사탄은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간교한 방식으로 변절한 교회 안에 내주한다.
 - c. 변절한 교회는 비밀들을 가르치지만,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비밀한 것들이 아니다 — 골 2:2, 엡 3:3-5, 9, 5:32.
 - d. 회당의 종교와, 사탄의 권좌 아래 있는 세상과, 사탄적인 비밀들에 관한 철학은 모두 교회를 손상시키고 부패시키기 위해 사탄에 의해 사용된다 — 계 2:9, 13, 24.
- C. “주님과 그분의 회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변절한 교회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3장, 177쪽)

IV. “눈은 불꽃과 같으시고, 발은 빛나는 놋쇠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계 2:18.

- A. 변절한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에서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변절한 이단에 반대하셨다.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의 유출 혹은 나오심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 요 1:18.
 - a.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유출 곧 하나님의 나오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b.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
 2.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 요 20:31.
 - a. ‘그리스도’는 직무 혹은 임무에 따른 주님의 칭호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위격에 따른 그분의 칭호이다 — 마 16:16.
 - b. 그분의 위격은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이며, 그분의 임무는 하나님의 일의 문제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 B. 변절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실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눈이 불꽃과 같으시고, 발은 빛나는 놋쇠와 같으신 분으로 언급하신다.
1. 변절한 교회는 그분의 살피시는 눈과 밟으시는 발로써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내가 사람의 속 부분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 계 2:23.

V.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본다.

- A.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 계 2:26-27상.

1.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상이다 — 계 20:4, 6.
 2. 주님의 이 약속은 타락한 기독교를 이기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3.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이는 목자이다 — 계 2:27.
 4. 시편 2편 9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동일한 권위를 주신다.
- B. “나는 또 그에게 셋별을 줄 것이다.” — 계 2:28.
1. 그리스도의 예표들에 관해서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밝은 셋별이신 그리스도로 끝마친다 — 창 1:3, 계 22:16.
 - a. 셋별은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이르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 b.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가 끝나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밝은 셋별로서 나타나실 것임을 가리킨다.
 2. 밝은 셋별이신 그리스도는 깨어 있고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실 것이다.
 - a.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셋별이신 그분 자신을 비밀스럽게 주실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서 오랜 부재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우선권을 얻게 될 것이다.
 - b. 이것은 그들을 격려하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고 깨어 있게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오심의 비밀한 부분 안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눅 21:36, 마 24:43.
 - c. 우리는 셋별이신 주님의 비밀한 나타나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3.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안에서 동이 트고 셋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 a.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셋별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하늘들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위에 빛을 비출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b. 셋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고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때까지, 우리는 확실한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전 존재를 이 말씀을 향해 열어 놓아야 한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탄의 깊은 것들

요한계시록 2장 24절은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 곧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깊은 것들’이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와 같이 ‘깊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타낸다. 로마 천주교는 많은 비밀들이나 깊은 교리들을 갖고 있다.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계 2:9), 세상적인 교회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었으며(13절), 변절한 교회 속에는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다(24절). 회당의 종교, 사탄의 권좌 아래 있는 세상, 사탄적인 비밀들의 철학들은 모두 교회를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는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마침내 교회는 세상적이 되어, 사탄이 거하며 그의 권좌가 있는 곳에 거하고 있다. 이 모두가 원수의 간교함이다. 그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발원(發源)된다. 그러나 여기 네 번째 교회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단지 사탄의 회당, 사탄이 거하는 곳, 혹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며, 교회에 가득 차 있다. 변절한 교회에는 사탄의 깊은 것들 곧 사탄의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이 있다. 이것이 사탄적인 철학이다. 변절한 교회는 사탄에 속한 비밀들을 가르친다. 이것은 사탄의 깊은 사상 곧 사탄의 관념이 변절한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가리킨다. 결국 이 교회는 사탄의 체현이 된다. 합당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변절한 교회는 사탄의 체현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지만,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변절한 교회 안에 거한다. 사탄은 언제나 간교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가 처음 사람에게 왔을 때 그는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었다. 사탄은 늘 좋은 모습을 취한다. 사탄이 ‘교회’를 그의 걸모습으로 입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실제 상황임을 본다. 기독교계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비록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해도 실상 그 속에는 사탄 자신이 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한다.

사탄의 깊은 것들은 사탄적인 철학이며 간교한 것이다. 변절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소위 비밀들이 있다. 이 악한 교회가 가르친 비밀들은 모두 사탄적인 철학들이다. 그들의 철학 중 하나는 만일 당신이 어떤 것들을 성경 진리들 안에 첨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우신 주님은 이것을, 빵을 먹기 쉽게 만들기 위해 고운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에 비유하셨다. 변절한 교회는 말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갖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여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마스(mass)’는 고운 가루에 더해진 누룩이다. 이것은 간교하며 사악하다.

만일 당신이 이 악한 여자가 사탄의 체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살펴보라고 청하겠다. 4절은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라고 말한다. 이 악한 여자는 멋있는 외양을 갖고 있다. 그녀는 금과 보석들과 진주 곧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 바로 그 재료들로 치장(도금)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세 가지 재료들로 견고하게 건축된 반면에 이 악한 여자는 단지 그것들로 치장했을 뿐이다. 치장(도금)한다는 것은 거짓 모습으로 꾸미고, 피상적으로 매력 있게 되고, 악한 것을 감추어 호감을 주거나, 보이기 위한 걸모양을 갖는 것이다. 그녀의 외양은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흉측하다. 또한 이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갖고 있다. 성경의 예표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외관상 이 악한 여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주로 두 가지,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눈에 가증한 것이다. 겉으로 볼 때 이 여자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치장하고 금잔을 갖고 있으므로 매우 매력적이다. 만일 당신에게 통찰력이 없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속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 여자가 내적으로 어떠한지를 볼 때 우리는 그녀가 가증한 것들과 더러움으로 충만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니다.”라고 말한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통찰력을 갖고 계시므로, 이 악한 여자의 내부를 보신다. 주님은 그녀를 ‘창녀들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그녀가 모든 영적 음행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사탄의 체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에게서 그녀의 외적 모양을 꿰뚫어 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양날이 선 칼 곧 성경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 변절한 천주교의 악한 환경 안에서조차도 많은 이들이 구원 받았다. 천주교가 성경을 전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중국에서 많은 이교도 중국인들이 천주교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의 몇 구절들을 배웠다. 그러나 악한 일은 이것인데, 즉 사람들이 이 변절한 교회에 의해 도움을 받은 뒤에 그들은 참된 방식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아는 것에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주교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악한 것을 사랑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만일 이것이 악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깊은 속에서 여전히 이 악한 여자를 동정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만큼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재차 읽기 바란다. 주님은 이세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 악한 여자가 사탄 곧 악한 자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그 사악한 여자의 모든 섬유 조직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변절한 교회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요 사탄의 체현이다. 그것은 간교하고 악하다. 만일 변절한 교회에 관해서 더욱 많이 보고자 한다면, 니 형제님의 저서 <교회의 정통> 을 읽어 보라. 주님과 그분의 회복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 변절한 교회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일단 우리가 그녀를 안 다음에는, 그녀와 관련된 그 무엇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녀가 큰 음녀요 큰 바빌론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앞으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큰 음녀가 몇 명의 딸을 갖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우리는 변절한 교회에 관해서 철저히 비춤을 받아야 한다. 일단 우리가 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관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며, 이세벨이자 악한 여자이자 창녀인 큰 바빌론과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딸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서신에서 주님은 그분이 이세벨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지적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우리는 대환난 동안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변절한 교회를 죽이고 손상시키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때에 종교적인 바빌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전에는 이 변절한 교회가 예언에 따라 계속 있을 것이다. 25절은 변절한 천주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임을 지적한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3장, 174-178쪽)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셋별이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장 28절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들에게 셋별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은 하늘에 속한 발광체로 상징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밝은 셋별이심을 계시한다(계 22:16). 그리스도의 예표들에 관해서, 성경 전체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창 1:3), 발광체, 곧 밝은 셋별이신 그리스도로 끝마친다. 셋별은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가 끝나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밝은 셋별로서 나타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분께서 셋별로 나타나시는 것(계 2:28)과 의의 해로 나타나시는 것(말 4:2)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자는 새벽 전에 일어나고 후자는 동이 뜬 후에 일어난다. 동이 뜬 후에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동이 뜨기 전에 밝은 셋별이신 그리스도는 깨어 있고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실 것이다. 사람들

이 밤에 깊이 잠자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샅별이신 그분 자신을 비밀스럽게 주실 것이다(계 2:28).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서 오랜 부재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우선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격려하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고 깨어 있게 한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의 비밀한 부분 안에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눅 21:36, 마 24:43). 샅별이신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에게 첫 번째 보상으로, 가장 일찍 얻는 상으로서 주어질 것이다(계 2:26-29). 우리는 샅별이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나타나심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민 24:17)과 주님의 출생 시에 나타난 별(마 2:7, 9-10)은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나오는 샅별로 완결된다. 어떤 별도 샅별처럼 밝지 않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기는 이들 안에는 빛나는 별이 있다. 이기는 이들은 이 특별한 빛, 곧 샅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릴 것이다.

신약의 처음에 별은 종교 밖에 있었다(마 2:1-6). 그러나 신약의 끝에 별은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오늘날 별을 보고자 한다면, 이방인 박사들이 한 것처럼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 오늘날 별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들 가운데 있다. 샅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 별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한다. 우리가 종교를 위한다면 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방에 있는 진정한 교회 안에 있다면 별을 볼 것이다. 종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밝은 별을 본다. 오늘날 하늘에 속한 별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샅별은 성경과 연결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속에서 날이 밝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 샅별이 떠오를 것이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살아 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우리 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새벽’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샅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샅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빛을 내는 물질인 인(燐)을 의미한다. 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참된 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서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빛남이 우리의 마음에서 신성한 ‘인’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샅별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박사들처럼 될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무언가가 우리 위에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는 확실한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 샅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고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때까지,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곧 우리의 입과 눈과 생각과 영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4191-4192쪽)*